

## 스웨덴민주당의 약진 배경과 원인 :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수정\*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국가주의 우파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의 배경과 이민 인구 변화, 사회통합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활황을 맞은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쳤다. 1970년부터 이민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 과거 노동이민 중심에서 이후 분쟁지역의 난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유럽의 극우정당 대부분이 반이민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반해, 정작 인구 대비 난민이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자 긴 이민 역사를 지닌 스웨덴에서는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웨덴민주당은 1988년 창당한 이후 줄곧 변방에 머물다가 2010년 반이민을 기치로 내걸고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세력을 불러 2018년 총선에서는 제3당으로 올라섰다. 스웨덴의 이민역사,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해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원인을 짚어본다. 극우정당이 아닌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며 무책임한 난민 이민 정책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사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는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스웨덴의 변하는 정치지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핀다.

\* 북유럽연구소 소장

주제어: 스웨덴민주당, 이민자, 사회통합, 시민당, 극우정당

## 1. 서론

### 1.1 스웨덴을 떠도는 유령

한 유령이 스웨덴을 배회하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유령이.<sup>1)</sup>

스웨덴민주당(Sverigedemokraterna, SD)은 스웨덴의 극우정당이다. 현재 스웨덴사회민주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에 이어 제3당이다. 2018년 선거에서 스웨덴민주당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대략 유권자 다섯 중 한 명은 스웨덴민주당을 찍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스웨덴민주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없다. 스웨덴은 지지정당이나 정치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임에도 유독 스웨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끼는 기류도 있었다. 분명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듯, 스웨덴의 유일한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그렇게 유령처럼 스웨덴을 배회하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1988년 창당했다.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원외정당으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다 2010년 선거에서 5.7%의 득표율로 20석을 얻어 창당 이래 처음 의회에 진출했다. 이후 2014년 총선에서 12.9% (49석)로 제3당이 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2석을 획득하여 스웨덴 정당 중 다섯 번째로 유럽 의회에 진출했다. 2018년 총선에서는 세를 불려 17.6%(62석)을 획득해 중도 좌파를 대표하는 사회민주당과 중도 우파를 이끄는 온건당에 이어 제3당의 입지를 굳혔다.

1)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로 시작하는 공산당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이다.

## 1.2 연구 목적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인종주의 소수정당 취급을 받던 스웨덴민주당이 지난 100년 스웨덴을 이끈 사민당을 위협하는 정당으로 올라서기까지 그 배경과 약진의 원인을 살펴본다. 반이민을 주요 기치로 내건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스웨덴의 이민정책, 사회통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스웨덴민주당의 전략 변화를 짚어보았다.

스웨덴의 이민 역사를 개괄한 후 스웨덴민주당이 창당한 1980년대 이후 이민 인구의 수와 구성의 변화를 추적해 스웨덴민주당지지율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인구구성 변화와 지지율 정보는 스웨덴 통계청 공식 자료를 활용했다. 스웨덴통계청 자료는 인종이나 특정 민족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 가공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했다.

이어서 스웨덴의 사회통합수준과 사회 분위기, 세계적인 극우주의가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스웨덴통계청과 여타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유로바로미터의 자료를 참고했다.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분리 현상에 주목했다. 스웨덴의 도시의 진입과 진출을 분석한 논문과 거주지 변경의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한 논문을 참고했다.

반이민을 주장하던 단일의제 정당에서 제3당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스웨덴민주당의 전략도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북유럽 극우정당을 분석한 논문과 스웨덴민주당의 공식자료, 여러 신문 기사를 참고했다.

결론을 통해 극우정당이 아닌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며 사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는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스웨덴의 변하는 정치지형을 살핀다.

## 2. 스웨덴 민주당의 역사

### 2.1 2010년, 스웨덴 민주당의 TV광고와 최초의 원내진입

스웨덴민주당이 처음 의회에 입성한 2010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스웨덴 유권자는 스웨덴민주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놀림감이나 무시의 대상이었다. 직전 선거인 2006년에는 다겐스뉘헤테르(DN), 스펠스카다그블라뎃(SvD), 엑스프레센(Expressen) 등 스웨덴의 주요 일간지가 스웨덴민주당의 선거 광고를 보이콧했다. 2010년 선거에서는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상업 텔레비전 채널인 TV4가 선거 직전 스웨덴민주당의 광고를 거절했다. 스웨덴민주당의 홍보책자 배달을 거부한 우체국도 있었다(Becker, 2019). 결국 스웨덴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내보냈고 SNS와 온라인 뉴스채널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문체의 광고는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스웨덴민주당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담아 선거기간 내내 구설에 올랐다.

<그림 1> 2010년 스웨덴민주당의 동영상 광고 중 한 장면



출처: 유튜브 Sverigedemokraterna valfilm

30초짜리 광고 영상은 빠르게 줄어드는 국가재정 숫자판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지폐계수기를 돌리는데 연금 기금 쪽은 돈이 바닥나고 바로 옆 이민국 책상에는 지폐가 가득하다. 국가재정을 보여주는 숫자판이 1억 크로나 이하로 떨어지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되듯 국가재정 숫자판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저 쪽에서 전형적인 스웨덴인을 상징하는 은발의 백인 여성이 보행 보조기를 끌며 힘겹게 연금을 받으러 간다. 이때 뒤에 한 무리의 검은 실루엣이 등장한다. 부르카를 쓰고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 눈에 보아도 이슬람계 이민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가던 은발 여성이 급한 마음에 거친 숨을 내쉬며 보행기를 끌고 가는데 검은 여성의 무리가 백인 여성을 앞지른다. 절박하게 손을 내밀며 연금 기금 창구를 향해 달린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차분한 내레이션이 들리며 광고를 마친다. “9월19일, 당신은 연금이 멈추기 전에 이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스웨덴민주당.”<sup>2)</sup>

TV4의 CEO 얀 웨르만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영상은 방송법 라디오와 TV 법령의 민주주의 항목에 위배되며, 유럽 협약과 UN 헌장에 명시된 인간의 평등권에 반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민중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도 저촉한다.”며 방송 불가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Modin, 2010).

스웨덴라디오의 정치 기자인 폰투스 맛손은 이 영상은 스웨덴민주당의 의도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미미한 지지율의 인기 없는 정당으로서 스웨덴민주당은 다수 유권자의 호감을 사는 전략이 아닌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다수를 포기하더라도 이민을 싫어하는 소수 집단에 강하게 호소해 확실한 표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Modin, 2010).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했는지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초로 의회 진입 최소 기준인 4%의 득표율을 뛰어 넘는 5.7%로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스웨덴 사회의 반응은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웨덴민주당을 나치와 연관이 있는 인종주의 정당으로 인

2) “Den 19 september kan du välja invandringsbroms före pensionsbroms. Sverigedemokraterna.”

식하고 있었고 스웨덴민주당의 광고는 스웨덴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스웨덴민주당이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반응까지 있었다. 존재한지 20여 년이 넘도록 소수의 극우주의자로 취급하며 백안시 해오던 정당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3. 스웨덴민주당 창당 배경

스웨덴민주당의 전신은 1986년 창당한 스웨덴당(Sverigepartiet)에서 찾을 수 있다. 스웨덴당은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스웨덴을 스웨덴답게(Bevara Sverige Svenskt)’ 운동본부와 진보당 (Framstegspartiet)이 합쳐져 만들어진 당이다. ‘스웨덴을 스웨덴답게’ 운동본부는 1979년 시작된 조직으로 비유럽 이민자와 바이킹 인종이 아닌 사람을 이민자로 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신의 딸을 니그로의 장난감으로 내주지 마라(Låt inte din dotter bli en negerleksak)” 등의 자극적인 문장으로 된 스티커를 나눠주기도 하고 (Lodenius & Larsson, 1991)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Lapidus, 2014).

병합의 다른 한 축인 진보당은 스웨덴 남쪽인 스코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모임형식으로 시작됐다. 1968년 중앙당의 한 국회의원이 세력을 모아 창당한 이후 선거 때마다 지지부진한 성적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1979년 스웨덴의 남동쪽에 자리한 도시인 노르쇼핑(Norrköping)에서 재창당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당은 극우 정당으로 주로 외각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여성은 부엌으로 돌아가라”, “정부의 주류 독과점을 폐지하라”, “에이즈는 외국에서 들어온다” 등 당시 변화하는 스웨덴 사회에 대한 반감이 정당의 주요 정책이자 동력이었다. 재창당 무렵부터 덴마크의 인기영합주의 우파 정당인 진보당과 교류하며 비슷한 노선을 견지했다. 덴마크 진보당은 이후 덴마크민중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노르웨이에서는 여전히 진보당으로 존재한다. 모두 극우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Widfeldt, 2018: 5).

스웨덴민주당의 전신인 진보당과 ‘스웨덴을 스웨덴답게’ 운동본부가 스웨덴 극우주의의 시초인 썸인데 창당은 1988년이지만 그 전신 조직의 병합과

정을 보면 이미 70년대 말부터 스웨덴 내부에 반이민 정서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웨덴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1988년 창당 회원 일부가 공공연히 나치를 찬양하거나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했던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Treijns, 2017).

### 3. 스웨덴 이민 인구의 변화와 스웨덴민주당

#### 3.1 스웨덴 이민 역사

##### 3.1.1 1940~198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후 남유럽, 동유럽 등지에서 노동이민 적극 수용

스웨덴의 이민 역사는 제2차 대전 무렵인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독일과 이웃 나라인 덴마크, 핀란드, 발틱 국가에서 전쟁을 피해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건너와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쟁이 끝난 후 본국으로 귀향했지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틱 출신 중에는 스웨덴에 남기를 선택한 이가 많았다. 이들이 스웨덴의 1세대 이민자다.

이후에는 노동 이민으로 이어졌다. 중립을 지키며 전쟁의 포화에서 살아 남은 스웨덴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지 않아 유럽에서 가장 경기가 좋았다. 유럽 각지의 기간 시설이 파괴된 것은 물론 대륙 전체가 황폐해져 모든 것이 부족했다.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스웨덴의 수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스웨덴은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 노동이민 정책을 폈다.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과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등 발칸 국가, 멀리 터키에서도 스웨덴에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왔다. 특히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쓰던 핀란드의 경우 스웨덴 기업이 핀란드로 건너가 채용설명회를 열고 숙련된 기술자를 데려오는 일도 흔했다(SI, 2019).

밀려오는 이민자뿐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대도시에 주택난이 발생했고 당시 집권당인 사민당은 1965년부터 10년간 매년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축했다. 이것이 유명한 밀리언 프

로그랩(Miljonprogrammet), 백만 가구 정책이다. 수도인 스톡홀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대부분이 이때 지어진 것이다. 백만 가구 정책은 스톡홀름 이외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실행한 것으로 스웨덴의 대도시인 예테보리, 말뫼, 옘살라, 린쇼핑, 룬드, 우메오, 헬싱보리 등지에서도 당시 지어진 공동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스웨덴 인구가 8백만이었으니 정부 주도로 인구의 1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한 셈이다.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자 1970년 들어 이민국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민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규제 직후 이민자 수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마침 그 무렵 핀란드 등 주변 국가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 역이민을 가는 경우가 늘어 1970년대 초반에는 이민을 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았다.

### 3.1.2 1980~2000년대: 서아시아와 동유럽 등지에서 정치적 망명과 난민이민 수용

스웨덴 이민의 역사는 국제 분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초기 이민자가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스웨덴을 찾았듯,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이후 8년의 전쟁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만 3만5천여 명이 스웨덴에 난민 신분으로 정착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악명 높은 인종 청소 전쟁이 벌어지자 보스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발칸지역에서 10만이 넘는 이민자가 스웨덴으로 건너왔다. 1973년 시작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의 박해를 피해 스웨덴으로 건너온 인구가 4만5천 명 가량이다. 그밖에도 쿠르드 난민, 소말리아, 구 소비에트 유니온, 레바논, 에티오피아 등 내전 지역에서 이민을 많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난민이민이 크게 늘었다. 특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출신이 많았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 인구 대비로 치면 세계 최다이다. 추세는 이어져 2006년부터 매년 스웨덴 인구의 1%에 이르는 10만 명 이상 이민을 받았다. 스웨덴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타개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이

민정책을 펴왔다.

## 3.2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민의 상관관계

### 3.2.1 이민자 수

스웨덴민주당은 창당 이후 첫 선거인 1988년 선거에서 1,118표를 얻었다. 이후 1991년 4,887표(득표율 0.1%), 1994년 13,954표(득표율 0.3%), 1998년 19,624표(득표율 0.4%)로 창당한지 10년이 넘도록 의회 입성 조건인 4%는커녕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2002년 선거에서 76,300표(득표율 1.4%)를 얻어 처음으로 득표율 1%를 넘은 후 의회에 입성한 2010년 전까지 매년 두 배씩 세를 불렀다. 창당에서 의회 입성까지 22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과 이민인구의 증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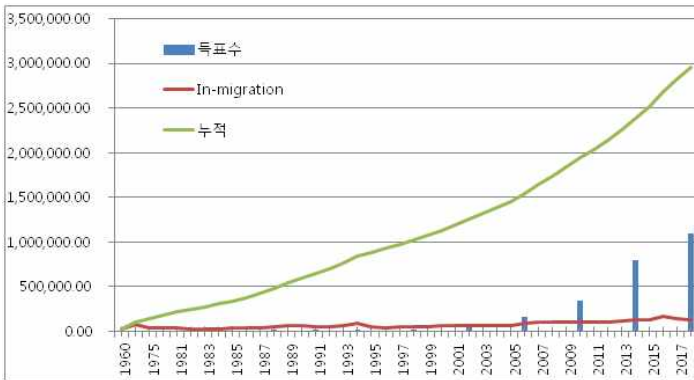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이민자의 수는 연평균 5만 명가량으로 이민자 유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누적인구로 보면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60년대 스웨덴에 정착한 이민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1998년은 누적 이민자수가 처음으로 100만을 넘는 해다. 1998년 스웨덴 인구가 880만 가량이니 보수적으로 잡아 대략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전체 인구 중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은 약 1천만 인구 중 1,955,569명으로 인구의 19.1%를 차지한다. 단순히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숫자는 이민 1세대만 포함한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가 이민자인 경우 즉 이민 2세 인구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스웨덴 통계자료에서는 이민자 대신 해외배경 *utländsk bakgrund*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sup>3)</sup>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나 스웨덴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과 부모 양쪽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을 포함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스웨덴 인구 중 해외 배경을 지닌 인구는 24.1%, 스웨

3) 스웨덴정부 문서와 통계자료를 보면 ‘이민자 *invandrare*와 이민2세’를 합쳐서 지칭할 때 ‘해외배경 *utländsk bakgrund*’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쓰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의 지침에 따르면 자료에 인종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드러낼 수 없다. GDPR, Art. 9.

덴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이민자 또는 이민 2세대(SCB, 2018).

<그림 2> 연도별 이민자수와 스웨덴민주당의 득표수



출처: SCB 통계 자료 병합 가공

2006년부터 연평균 이민자 수가 5만에서 10만으로 두 배가 됐다. 매년 인구의 1%를 넘겼고 2016년 한 해에만 16만3천 명을 받아 정점을 찍었다. 누적 이민자수가 100만을 넘긴 1998년부터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연평균 이민자수가 10만을 넘기 시작한 2006년 다음 선거인 2010년에 득표율 5.7%로 의회에 입성했으니 이민인구의 증가와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밀접한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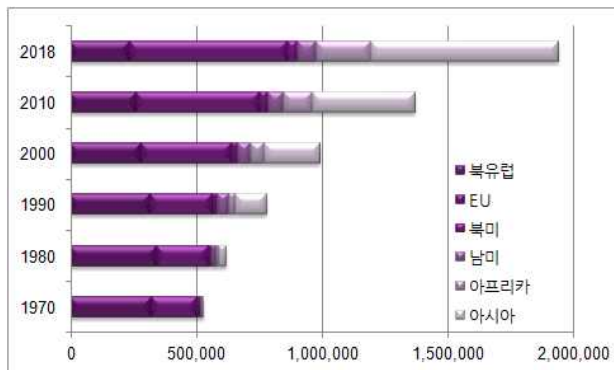
누적인구수와 지지율은 2006년 이후 비슷한 경향성을 띄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누적인구 선은 시작연도가 표시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편을 향해 좌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직선인데 반해,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은 창당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X축에 붙어 있다가 2006년부터 우상향 포물선을 그리며 급격히 올라간다. 연간 이민자수와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이 X축에 붙어있는 구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의 수는 1960년대부터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지만 스웨덴민주당의 전신으로 1968년 창당한 진보당을 비롯 어떤 극우정당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극단주의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던 스웨덴민주당이 제3당으로 올라서기까지 다시 말해 스웨덴의 반이민 정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까지 약 40여 년의 잠복기가 있었던 셈이다. 이민자의 수는 같은 속도로 늘었지만 2006년 선거까지 스웨덴민주당은 원내진입 최소 요건인 4%의 득표율도 얻지 못하는 미미한 정당이었다. 스웨덴 민주당이 급격히 성장한 모멘텀과 40년의 간극은 이민자 수의 증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 3.2.2 이민인구의 구성

2018년 스웨덴 전체 인구 중 해외에서 출생한 인구, 즉 이민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시아계로 38.1%다. 유럽출신이 32.2%, 핀란드 등 이웃 북유럽이 12%, 아프리카가 11.2%로 뒤를 잇는다. 아시아계 이민자의 수는 2010년 410,083명에서 2018년 745,271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 스웨덴 인구의 7.3%를 구성한다.

<그림 3> 1970~2018 이민자 출신 지역 구성비 (단위: 명)



출처: SCB 통계 자료 병합 가공

연도 별 해외 출생 인구의 출신 지역 변화를 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인 북유럽과 EU 출신의 비중이 1990년 72%로 대다수이나, 2018년 44%로 크게 줄었다. 유럽계 이민자는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남유럽 출신 노동이민이 다수였으나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을 기점으로 동유럽에서 상당수가 망명해 왔다. 현재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계 인구로는 폴란드가 92,759명으로 가장 많고,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터키, 세르비아 몬테니그로가 순서대로 뒤를 잇는다.

80년대부터 난민 이민이 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구가 유입되었다. 난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태국 등의 순으로 그 중 64%가 이슬람 문화권 출신이다.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이 증가해 둘의 비중을 합하면 30% 정도다. 2000년대를 거치며 그 수가 크게 늘어 2018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을 넘는다. 2006년부터 연간 10만 이상의 이민자를 받았으니 과거 10년간 100만 명 이상, 즉 인구의 10%가 넘는 새로운 얼굴이 스웨덴의 거리를 채운 셈이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이민자 중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수와 스웨덴민주당의 득표수의 추이를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간이민자수: IP 통계는 매년 집계된 자료가 있지만 이민자의 출생국 통계는 매 10년 별로 정리된 자료만 공개되어 있다. 매4년 마다 있는 총선 중 1994년, 1998년, 2006년, 2014년 아시아계+아프리카계이민자수: AAIP는 추정치를 산정해 입력했다. 구하고자 하는 연도 X의 이민자 중 AAIP의 비중: R을 구한 후 IP를 곱해 추정치를 계산해냈다.

X 해의 AAIP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신국 별 이민자수가 공개된 두 연도 A, B를 골라 해당 기간 사이의 연평균증가율: AR을 구한다. X해의 IP에 A연도의 AAIP를 곱한 것과 X해의 IP에 {AAIP(A-B)AR}와 X와 A의 연도 차를 곱한 것을 더하면 X 해의 AAIP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2000년 사이 연평균 AAIP를 구하기 위해서는 2000년 AAIP에서 1990년 AAIP를 뺀 후 200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차이이므로 10으로 나눠주면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AAIP}(1990-2000)\text{AR} &= (\text{AAIP}2000\text{R} - \text{AAIP}1990\text{R}) / 10 \\ 0.83 &= (27.7 - 19.4) / 10 \end{aligned}$$

1990~2000년의 AAIPAR 값인 0.83%를 활용해 IP만 있는 1994년의 AAIP

를 추정해 낼 수 있다.

$$1994AAIPR = 1994IP * (1990AAIPR+AAIP(1990-2000)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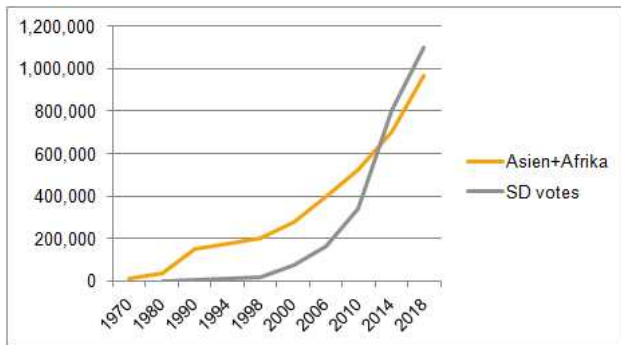
계산을 통해 추정한 1970~2018 아시아+아프리카계 이민자 수와 스웨덴민주당의 득표수의 표와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추정치로 구한 수치는 이탤릭 체로 표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와 스웨덴민주당 득표율의 증가는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경향을 띤다.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은 이민자 수의 변화보다는 구성의 변화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표 1>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와 스웨덴민주당 득표수 (1980~2018년, 단위: 명)

	1980	1990	1994	1998	2000	2006	2010	2014	2018
AAIP	40,376	151,790	209,964	252,912	275,815	400,086	524,936	686,486	965,185
SD votes	1,118	4,887	13,954	19,624	76,300	162,463	339,610	801,178	1,100,266

출처: SCB 통계 자료 병합 가공

<그림 4> 1970~2018 아시아+아프리카계 이민자수와 스웨덴민주당 득표수 (단위: 명)



출처: SCB 통계 자료 병합 가공

### 3.3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과 사회통합의 상관관계

#### 3.3.1 이민자에 대한 인식

스웨덴은 여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이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은 2016년 이후에도 긍정적인 인식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2018년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응답자의 76%가 “이민을 받는 것은 사회에 긍정적”이며, 93%가 “이민을 통해 음식, 예술, 음악 등 문화가 풍성해 진다”고 답해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밖에 이민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응답자 중 69%),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87%)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Eurobarometer, 2018: 72-80). 경제지표로 보면 경기부양의 효과가 커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유입에 힘입어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Lindeberg, 2018).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가?”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8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반이민 정서의 기저에 이민자가 현지 태생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반해 스웨덴의 반이민 정서는 일자리 경쟁이 아닌 문화적 이질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2014-2017년까지 4년에 걸친 답변 내용을 분석해볼 때 응답자의 성향은 대동소이하나 특이점이 있다. 이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동시에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민자는 단지 스웨덴의 복지를 누리려고 왔다” 항목에서는 46%가 그렇다,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인식의 대립이 팽팽했다. “이민자 그룹의 문화나 전통이 때때로 스웨덴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항목에 67%가 동의해 문화적 이질성을 느끼는 이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trömbäck & Theorin, 2018). 부정인식의 경우 시간의 폭을 좀 더 넓히면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 예테보리 대학의 <1986-2015 스웨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의 증가에 대해 염려된다는 대답이 2011년 20%에서 2016년 29%로, 이방인혐오와 인종주의가 늘었다는 답변도 2014년 37%에서 2016년 40%로 늘었다(Oscarsson &

Bergström, 2016: 26).

종합하면 스웨덴 시민의 대다수는 이민에 대해 긍정적이고, 스웨덴의 경제와 문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이 아닌 문화적인 것으로 이는 지역별 이민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종교나 전통 등 문화적 거리감이 먼 지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비슷한 문화권인 유럽과 북미 출신 이민자에게 더욱 긍정적이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이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trömbäck & Theorin, 2018).

### 3.3.2 거주지 분리 현상

스웨덴 사람들은 이민 자체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민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은 반기지 않는 듯하다. 이는 거주지 분리 현상으로 드러난다. 스웨덴의 주요 도시의 전입 전출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이민인구가 늘어나면 원 거주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민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Neuman, 2014: 36-69).

노동이민의 경우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지만 난민 이민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 거주권을 받으면 정부가 알선한 지역에 정착하거나 친척 등의 연고지로 이주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착 주택이 바닥나 임시 거처를 떠도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연고를 찾아 정착하다보니 대도시에는 이민자가 절대다수인 게토가 형성되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집값이 크게 올라 소득에 따른 거주지역의 구분이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분리 거주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에는 이민자가 절대다수로 구성된 동네가 생겼고, 정부 주도 정착지역 중에는 이민자 인구가 토착 스웨덴인구보다 더 많은 곳도 있다. 보트쉬르카(Botkyrka), 쇠데르텔리에(Södertälje), 하파란다(Haparanda) 등의 지역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과반을 넘어 각각 58,6%, 53,0% 51,7% 에 이른다(SCB, 2018). 스톡홀름 외각의 링케비나 텐스

타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다녀도 스웨덴 사람 하면 떠올리는 외형의 스웨덴인을 보기 어렵다. 실제로 16,400여명의 링케비 인구 중 91%가 해외배경 인구이다(Becker, 2019). 인근 학교에는 모든 학생이 이민자로 구성된 학급이 있는가 하면, 스웨덴어를 구사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학급도 있다.

1990년대에 집권한 우파정권은 사회제도를 친시장주의적 성격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 중 주거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계도화를 가속화했다. 주거 수당의 삭감과 축소, 주택 시장의 민영화, 민간 독립학교 설립 등은 인종간 민족간 양극화와 분리를 만들어냈다(김철주, 2017: 43).

스웨덴 부모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막상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는 이민자가 적은 학교를 선택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민자가 많은 학교에 가면 오히려 자녀가 소수 민족 그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스웨덴어를 익히는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웨덴 중산층에 걸맞은 ‘충분히 스웨덴스러운 환경(tillräckligt svensk miljö)’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Lilja, 2015: 163-171).

노이만(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한 이유다.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거주 지역에 이민인구가 늘면 이사를 나가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거주자가 늘어날 경우에 해당되며 유럽계 이민자의 경우 그 수가 늘어도 원 거주자가 이사를 나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 3.3.2 차별과 낙인

거주지 분리에 따른 물리적 분리와 함께 정서적인 분리도 커졌다. 스톡홀름 물 부족의 이유가 이민자 때문이라거나 이민자가 연루된 강간사건, 이슬람에 대한 공포 조장 등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돌고(Becker, 2019), 미디어는 이민자의 범죄를 더 큰 비중으로 다루는 것(Estrada, 2016)도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해 사회통합을 방해한다

최근 거주허가를 받은 난민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기초교육만 받은 상태다. 스웨덴의 산업구조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해 비

숙련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5% 수준이다. 스웨덴어가 서툰 비숙련 이민자가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Calamur, 2018).

이민인구의 실업률은 20%에 달해 스웨덴의 전체 평균 실업률인 7%의 세 배에 이른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경력의 이력서에 전통적인 스웨덴 이름과 아랍계 이름을 넣어 지원했을 때 스웨덴 이름의 지원자가 다음 단계로 통과하는 확률이 50% 포인트 높다고 한다(Gee, 2013).

2000년대에 들어 총기 사건, 마약 거래를 둘러싼 조직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범법자의 구성에서 이민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는 이민자가 늘어 범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추론이라고 한다. 어떤 사회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다수는 취약계층으로 높은 실업률, 가난, 학업중단, 공동체정신의 부재 등은 대다수 범죄 행위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배경이다. 이민자나 유색인종이어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가 범죄율이 높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사회경제적 요소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나이, 교육, 소득 등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를 감안해 범죄율을 산출하면 이민자그룹과 스웨덴 태생 사이에 차이가 줄어들는다. 같은 이민자 그룹 내에서도 어린 나이에 스웨덴 사회에 정착한 경우 범죄율이 낮다(Brå, 2016: 10).

## 4. 스웨덴민주당 약진의 배경

### 4.1. 정치 사회적 배경

이민 인구의 증가는 과거 반세기 적극적 이민정책에 따른 스웨덴 국정 운영의 결과다. 스웨덴 정치사에 있어 사민당의 집권 기간이 절대적으로 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권당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로 뒤집히는 일은 없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 하다 보니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준비과정이 길고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연간 이민자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실제로 보수 연합의 집권 기간이다. 이민정책은 스웨덴 사회 전체의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긍정적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스웨덴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반이민을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이민자의 스웨덴어 교육 의무화나 국경검색 강화, 친척 초청 이민 조건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 등의 미봉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스웨덴민주당 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문화적으로 거리감이 먼 지역에서 다수의 난민이민이 유입 되었다. 기존 정당은 주택, 고용, 보육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채 일 년에 인구의 1%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인구의 25%에 이르는 해외 배경 인구와 함께 스웨덴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았고 곳곳에서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 언론과 가짜뉴스를 통해 과다 대표되고 확대생산 되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약자에 대한 공격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어떤 개인도 정당도 드러내놓고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때 스웨덴민주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나선 것이다.

2018년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을 땡기는 25%까지 예측했다. 그럼에도 모든 당이 향후 스웨덴민주당과 손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라 선언했고, 스웨덴민주당은 스스로를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이라 지칭했다. 어떤 당에게 투표해도 결과는 같았다며 스웨덴민주당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어떤 당도 변하는 인구구성과 스웨덴 사회의 갈등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는 와중에 스웨덴민주당이 물꼬를 튼 셈이다. 늘어나는 이민 인구와 사회의 수용력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퍼져있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일한 야당’인 스웨덴민주당 말고는 불안을 분출할 출구가 없었다.

사회 변화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 급격한 변화에는 그만큼

의 반대 기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난 10년간 문화적 차이가 큰 이민자 그룹이 전에 없이 많은 수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정서적 이질감이 생기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더해 온 유럽에 퍼진 극우주의와 세계화, 다양한 의견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불만과 두려움에 촉매가 된다. 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주류가 되면서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스웨덴 공기관과 언론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과거에는 차마 할 수 없던 발언, 소위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히 할 수 없는 표현이 요즘은 공공연하게 등장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스웨덴민주당은 그 선두에 있다.

## 4.2 스웨덴민주당 2.0

스웨덴민주당은 반이민을 기치로 하는 단일 의제 정당으로 의회에 입성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종주의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우파 정당으로 인식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정당 행사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12년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당원 100여 명을 퇴출하기도 했다. 현재 당원은 3만 명 정도이며 초기에는 창당의 거점이었던 남부 지역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2010년 이후 전국에 걸쳐 세를 키우고 있다.

스웨덴통계청(SCB, 2019) 정당선호도 자료를 분석하면 2019년 11월 기준 스웨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지지율이 22.4%이며, 연금수령연령인 65세 이상의 지지는 1년 사이 10% 포인트 이상 늘었다. 스웨덴민주당이 시작된 스코네를 중심으로 한 남부의 지지가 29.7%로 모든 정당 중 가장 높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으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는 9.7%의 지지율로 전 지역 중 유일하게 10% 미만의 지지를 받았다. 지지자 중 해외배경과 스웨덴 태생의 비율은 각각 41%와 59%다.<sup>4)</sup> 2014년 이후부터 해외배경 인구의 스웨덴민주당 지지가 늘었다. 중고등

4) 사민당의 해외배경과 스웨덴태생 지지비율은 61% 대 39%다.

학력이 전체 지지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득분위 상위 41~80%가 핵심 지지층이다. 직업군으로 보면 블루칼라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성비로 보면 남성이 여성의 두 배다.

스웨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극우 정당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나(Becker, 2019) 유럽 의회에서는 영국의 보수당 등 주류 우파 정당과 연맹을 맺어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타 대안우파 극우정당과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스웨덴민주당은 반이민을 전면에 내걸고 세금감면 등 정책 전반에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극우정당에 비해 온건할 뿐 아니라, 한 주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단일 의제 소수정당의 면모를 벗어나 일반 정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Widfeldt, 2018: 6).

스웨덴민주당이 처음 내걸었던 모토는 ‘스웨덴을 스웨덴답게’다. 스웨덴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스웨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가주의 보수 정당이라 표현한다. 스웨덴의 가치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소외 지역 증가, 성범죄와 조직범죄 등 증가, 종교적 극단주의, 이민자에 대한 예산 지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통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신중한 이민정책, 범죄자의 형량 강화, 병원과 학교의 복지 서비스 강화와 연금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다수의 이민자가 스웨덴이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한다(SD, 2019).

2002년과 2014년 스웨덴 총선의 5대 쟁점 우선순위는 교육·보건의료·경제·고용·복지의 순서로 과거 직업군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지지에서 벗어나 쟁점투표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조돈문, 2019: 93). 이런 가운데 스웨덴민주당이 투표 시 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조세와 교육, 복지과 범죄 등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스웨덴민주당이 주류 정당으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민주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 전체를 반이민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중에는 이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수를 줄이자거나, 스웨덴민주당이 주장하는 범죄자 처벌 강화나 연금 확충 등에 찬성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중

산층과 연금수급자, 지방거주의 블루칼라 노동자는 강한 복지를 지지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반발해 문화충돌의 두려움을 느껴 스웨덴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4.3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으로 인한 스웨덴의 정치지형 변화

스웨덴의 정당을 좌에서 우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나열해 보자면 좌파당(Left Party: V), 스웨덴사회민주당(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S), 녹색당(Green Party: MP), 온건당(Moderate Party: M), 중앙당(Centre Party: C), 크리스찬민주당(Christian Democrats: KD), 자유당(Liberals: L),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 SD) 순이다.

<그림 5> 2006-2018 정당별 득표율



출처: Statistics Sweden 통계 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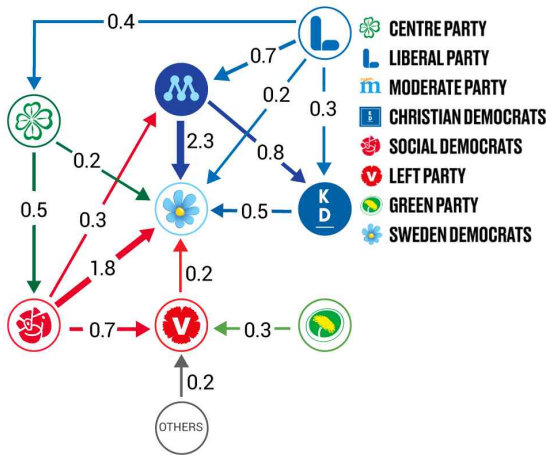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있었던 네 차례의 총선 결과를 보면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정당 득표율이 하락한 가운데 좌우를 각각 대표하는 사민당은 2006년 35%에서 2018년 28.26%로 6%포인트 하락했고, 온건당은 2010년 30%에서 20%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단일 정당으로는 온건당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민당의 위기다. 과거 30여 년 스웨덴의 투표 결과를 보면 사민당, 녹

색당, 좌파당의 범좌파와, 나머지 범우파 정당이 반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한 자리 수 차이로 정권을 얻었다 빼었다 해왔다. 과거 사민당은 줄곧 40% 이상의 지지율로 정권을 이끌어왔지만 2002년 선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총선 이후 2019년 11월까지 정당 지지도의 흐름을 보면 스웨덴민주당은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부터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다. 온건당을 비롯한 우파 지지율과, 사민당과 좌파당의 지지율 일부도 스웨덴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민당은 스웨덴민주당 뿐 아니라 온건당, 좌파당에도 지지율을 내줘 중앙당에서 넘어온 0.5% 포인트의 지지율을 감안해도 가장 출혈이 크다.

<그림 6> 2018년 총선 이후 정당 지지도 흐름(2019년 11월 기준)



출처: SCB

2010년 스웨덴민주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부터는 스웨덴민주당을 빼고 좌우가 비슷한 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범좌파와 범우파의 지지율은 각각 40%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을 우파로 분류할 경우 전체적인 범좌파 지지율은 1998년 53%에서 2018년 40%로 12%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우파연정의 지지율은 40%지만 스웨덴민주당을

포함하면 58%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좌파 지지 세력이 줄어든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은 한 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형성하지 못하면 연정을 통해 정권을 쥐게 된다. 결국 향후에 사민당이 녹색당, 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한다고 해도 범우파가 과반이상을 점유하게 되어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8년 선거 당시에는 어떤 정당도 스웨덴민주당과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어느 정당이든 스웨덴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2019년 6월에 기독교민주당, 뒤이어 온건당이 스웨덴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 5. 결론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이유를 단순히 이민인구가 증가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 40년대부터 긴 이민 역사를 가진 스웨덴에서 반이민을 주장하는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에서야 5.7%의 지지로 의회에 진출했다. 지난 10년 사이 스웨덴민주당의 세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수의 증가 뿐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 사회통합 정도, 극우주의의 세계적 부상,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인식 변화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스웨덴 정치의 특성과 스웨덴민주당의 전략과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중 이민 정책의 변화와 거주지 분리로 인한 사회통합 지연,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을 중심으로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이유를 분석했다.

지난 10년 사이 반이민 정서가 수면위로 드러난 배경으로 먼저 난민의 급격한 유입과 이에 따른 대처의 부실을 들 수 있다. 2006년 이후 매년 스웨덴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10만 명 이상의 이민 인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일자리, 복지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다 문화적 거리가 있는 지역의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었으나 적절한 사회통합 정책이 가동 되지 않아 이질감이 커졌다. 충분한 준비 없이 난민 이민의 수를 크게 늘린 것이 사회적 반작용과 거부감을 키웠다. 한편 합

의주의 전통이 강한 스웨덴의 기존 정당은 늘어나는 이민 인구에 대한 대비와 사회통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과거 사민당이 밀리언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그룹을 한 공간에 수용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근교에 학교, 병원,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해 민주적 공동체를 구축한 것이나, 1960년대 후반 사민당이 선도적으로 다문화 개념을 채택해 1975년 5월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표방하는 흡수주의를 폐기하고 정부가 다문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민과 소수자 정책을 새로 정한(Wickström, 2015: 7-8) 선도적 정책의 부재와 비전의 실종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민주당이 과거 반이민 단일 의제 정당에서 교육·보건·의료·경제·복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들고 나온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는 큰 역할을 했다.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은 정체성의 재확립에서 두드러진다. “스웨덴을 스웨덴답게”를 주장하던 스웨덴민주당은 스웨덴스러움에 적응하는 이민자는 환영하지만 일하지 않고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만 하려는 이민자는 환영 받지 못한다고 했다. 노동과 세금을 통한 기여 없이 복지를 누리는 것은 스웨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던 지역에 이민자가 늘자 이사를 선택한 중산층 학부모는 “다문화는 좋은 것이지만 내 아이는 충분히 스웨덴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스웨덴스러운 환경”이란 전형적인 스웨덴 중산층의 삶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Lilja, 2009: 185-186) 이들이 말하는 “스웨덴스러움”은 규범으로 내재해 “토종” 스웨덴인과 이민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이성준, 2019: 64).

과거 스웨덴민주당과 뿌리가 닿아있는 인종주의 신나치 조직은 생물학적 스웨덴인을 주장했지만, 진화한 스웨덴민주당은 문화적 스웨덴인으로 프레임임을 바꿔 반이민을 주장하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복지국가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스웨덴민주당은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와 스웨덴의 자랑스러운 북

지시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사민당이야말로 스웨덴의 이상을 저버린 것이라고 한다. 과거 사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제조업 남성 노동자가 스웨덴민주당의 대표 지지자가 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2019년 12월 스웨덴통계청이 내 놓은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스웨덴민주당은 22.6%로 26.3%를 얻은 사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4% 포인트 차이로 사민당을 바짝 따라붙은 것이다. 스웨덴민주당 최고 기록이고 사민당은 역대 최저의 기록이다(SBC, 2019).

2018년 선거 결과 사민당은 기존의 적녹연정으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중앙당과 좌파당의 신임으로 겨우 정권을 잡았다. 대신 여러 정책에서 타협을 봐야 했다. 그 사이 스웨덴민주당은 무시할 수 없는 주류 정당이 되었다. 사민당과 온건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의 지지자가 스웨덴민주당으로 이탈하고, 투표 양상도 계급 투표에서 쟁점투표로 변해 과거와 같은 정당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실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1932년 총선 이후 스물한 번의 승리로 2019년까지 70년을 집권한 사민당과 비교해 총 다섯 번의 집권 경험을 가진 우파연합도 두 번 이상 연달아 신임을 받은 적이 없다. 불신임의 이유 중 하나가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스웨덴 정치는 기로에 서있다. 부동층으로 향하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과 스웨덴민주당에게 던진 표심으로 드러난 유권자의 기대를 스웨덴 정치가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철주(2017). 스웨덴 거주 이주민 밀집지역의 게토화 실태와 원인: 말뫼(Malmö)시 사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20, 43-82.
- 이성준(2019).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시사점.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57-65.
- 조돈문(2019).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Becker, J. (2019, Aug 10). The global machine Behind the Rise of Far-Right Nationalism.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19, from <https://www.nytimes.com/2019/08/10/world/europe/sweden-immigration-nationalism.html>
- Bershidsky, L. (2018, Dec 1). Sweden's decades-long failure to integrate. *Bloomberg Business Week*. Retrieved November 21, 2019, from [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8-12-01/sweden-s-anti-immigration-wave-is-based-on-a-failure-to-integrate](http://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8-12-01/sweden-s-anti-immigration-wave-is-based-on-a-failure-to-integrate)
- Brå. (2016). Brottslighet bland personer födda i Sverige och i utlandet. *Brå: Brottsförebyggande rådet*. Retrieved November 14, 2019, from <https://www.bra.se/bra/publikationer/arkiv/publikationer/2005-12-14-brottslighet-bland-personer-fodda-i-sverige-och-i-utlandet.html>
- Calamur, K. (2018, Sep 8). Why Sweden's far right is on the rise. *The Atlantic*.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9/sweden-election/569500/>
- Delmi. (2018, May 17). Majority of Swedes positive about immigration: Study. *TT/The Local*.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thelocal.se/20180517/majority-of-swedes-positive-about-immigration-study>
- Eurobarometer. (2018).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Special Eurobarometer 469-Wave EB88.2-TNS opinion & social. European

Commission.

- Gee, O. (2013, April 5). Swedish study confirms foreign name CV bias. *The Local*.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thelocal.se/20130405/47164>
- Höjer, H. (2015, May 29). Segregeringen ökar i Sverige. *Forskning & Framsteg*.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fof.se/tidning/2015/7/artikel/segregeringen-okar-i-sverige>
- Lapidus, A. (2014, Sep 7). Här är SD:s mörka bakgrund i nazism. *Expressen*.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expressen.se/nyheter/inloggad/har-ar-sds-morka-bakgrund-i-nazism>
- Lilja, M. (2015). Det basta för mitt barn (Doctoral dissertation). Örebro Universitet.
- Lindeberg, R. (2018, Aug 21). Sweden's economy is getting a lift from migrants. *Bloomberg Businessweek*.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21/sweden-s-economy-is-getting-a-lift-from-migrants>
- Lodenus, A., & Larsson, S. (1991). *Extremhögern, Tidens förlag*. Stockholm.
- Modin, J. (2010, Aug 28). Sverigedemokraternas valfilm stoppas: SD räknade med reaktioner. *SVT*.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svt.se/nyheter/inrikes/sverigedemokraternas-valfilm-stoppas-sd-raknade-med-reaktioner>
- Neuman, E. (2015). Essays on segregation, gender economics, and self-employment (Doctoral dissertation). Linnaeus University.
- Oscarsson, H., & Bergström, A. (2016). Swedish Trends 1986–2015. *The SOM Institute*. Gothenberg University. Retrieved November 22, 2019, [http://som.gu.se/digitalAssets/1593/1593632\\_swedish-trends-1986-2015.pdf](http://som.gu.se/digitalAssets/1593/1593632_swedish-trends-1986-2015.pdf)
- SCB. (2017). Partisympatiundersökningen (PSU) maj 2017, SCB, Statistiska centralbyrån, urn:nbn:se:scb-2017-me60br1701. Retrieved November 22, 2019,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demokrati/partisympatier/partisympatiundersokningen-psu/pong/publikationer/partisympatiundersokningen-maj-2017/>

- \_\_\_\_ (2018, Mar 21). Nya svenska medborgare från drygt 160 länder. Statistik nyhet från Folkmängd och befolkningsförändringar 2017.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befolkning/befolkningens-sammansattning/befolkningsstatistik/pong/statistiknyhet/folkmengd-och-befolkningsforandringar-20172/>
- \_\_\_\_ (2018). Summary of population statistics 1960-2018. *Statistics Sweden*. Retrieved November 25, 2019, <http://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composition/population-statistics/>
- \_\_\_\_ (2019, Dec 10). The party sympathy survey November 2019. Retrieved December 24, 2019, [www.scb.se/publikation/37253](http://www.scb.se/publikation/37253)
- SD. (2019). Sverigedemokratisk politik. *Sverigedemokraterna*.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sd.se/vad-vi-vill/>
- SI. (2019). Post-war immigration. Sweden and immigration. *Swedish Institute*. Retrieved November 14, 2019, <https://sweden.se/migration/#1940>
- Strömbäck, J., & Theorin, N. (2018). Attityder till invandring: En analys av förändringar och medieeffekter i Sverige 2014-2016. Delmi. Rapport 2018:4. Elanders Sverige AB. Stockholm. Retrieved November 25, 2019, <https://www.delmi.se/en/society#!en/attitudes-toward-immigration-an-analysis-of-changes-and-media-effects-in-sweden-20142016-report-an-1>
- Treijts, E. (2017, Apr 30). Nazist arbetade för SS - var med och grundade SD. *Svenska Dagbladet*. Retrieved November 25, 2019, [www.svd.se/nazist-arbetade-for-ss--var-med-och-grundade-sd](http://www.svd.se/nazist-arbetade-for-ss--var-med-och-grundade-sd)
- Wickström, M. (2015). The multicultural movement: The history of the idea and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in Sweden in comparative, transnational and biographical context, 1964-1975 (Doctoral dissertation). Åbo Akademi University.
- Widfeldt, A. (2018). *The Growth of the Radical Right in Nordic Countries: Observations from the Past 20 Years*.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Abstract>

## **Analysis o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in Respect of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Sweden**

Ha, Soojeong\*

This study covers the relation betwee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Sverigedemokraterna, SD), a nationalist conservative populist party, and the country's population change. Sweden had an economic boom after World War II and the government had an active immigration policy to meet the demand of labour market and population decline ever since. After the 70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labour immigration to more of an immigration based on refugee. Though most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adopting anti-immigration policy gained popularity, Sweden Democrats remained on the fringe of the Swedish politics despite the county's long history of immigration. The Sweden Democrats crossed the 4% threshold necessary for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0 and became the third-largest party in 2018 after two decades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changing Swedish political landscape. The study scrutinizes the drive behind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by referencing th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over time in addition to the party's reframing strategy as an "only opposition party" in Sweden.

**Key Words: Sweden Democrats, anti-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right-wing popu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

\* Nordic Research Institute

---

성명: 하수정(Ha, Soojeong)  
소속: 북유럽연구소  
E-mail: hasoojeong@gmail.com

논문 접수일: 2019.11.29.  
수정원고 접수일: 2019.12.25.

논문심사 완료일: 2019.12.23.  
게재 확정일: 2019.12.29.